

# 김장페스티벌 '끝나지 않았다'

### 임실군, 26일~내달 2일까지... 임실N양념가공김치체험장서 추가 진행

임실군이 김장페스티벌에 참여하지 못한 가정들을 위한 김장체험 행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군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간에 걸쳐 '제3회 임실아시아김장페스티벌'을 개최한 데 이어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김장체험 행사를 연다.

지난 김장페스티벌에는 1000여명의 도시민과 지역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뤘다. 그러나 축제 당일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을 전하는 문의가 많아, 이들을 위한 2차 행사를 열기로 한 것.

군은 22일까지 추가 참여 신청을 접수받고, 현장접수까지 받을 계획이다. 행사장은 김장페스티벌이 진행된 임실N양념가공김치체험장이다.

김장페스티벌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미처 신청을 못한 지역민과 도시민들은 이날 김장을 담궈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군은 앞선 8월부터 김장페스티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배추품질 선정, 신안 천일염 공동구매, 절임배추 포장재 디자인 개발 등을 실시했다.



임실군이 김장체험 행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또한 유정임(포기김치명인 제38호) 명인과 함께 배추절임 매뉴얼 교육 및 실습 등 원물의 품질 고급화와 균일화를 꾀하며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작년보다 두 배 많은 1천팀에 40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사업당도 3만kg(절임배추 1만9800kg)에 매출액도 1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심민 군수는 "김장페스티벌 이후에도 임실N양념가공김치체험장에서는 김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이렇게 이번 축제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지속적인 김장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된 '임실아시아 김장페스티벌'은 해마다 참가 신청자가 급증하는 등 인근 도시민 등 소비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발효미생물진흥원 '순창전통장류제조사 2급 교육과정' 진행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사장 황숙주)이 순창전통장류 민간자격인 '순창전통장류제조사 2급 교육과정'(16기)을 지난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운영한다.

순창전통장류제조사 2급 교육과정은 2012년 12월 첫 개강을 시작으로 올해로 7해째를 맞고 있으며 총 301명의 교육생을 배출해 그 중 261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이번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수료 후 전통장류제조사 2급 자격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교육과정 80% 이상 출석한 교육생은 오는 22일에 실시되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순창전통장류제조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총 7일차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1일차 원재료 선별법, 매주성형법 등 △2일차 발효미생물학, 전통장류의 산업화, 푸드 패키징 기법 등 △3일차 장류의 조리과학, 고추장 제조 실습 등을 진행했다.

오는 20일부터 있을 △4일차 식품용기와 장류, 전통 청국장 제조 실습 △5일차(11.21) 푸드 스타일링, 전통식품포장 실습, 장담그기 △6일차(11.22) 식품위생, 식중독, 식품 법규, 제조사 자격시험 △7일차(11.27) 선진지 견학(세종시 뒤용박 고을)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도연 진흥원장은 "전통장류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전통장류제조사 1급 교육과정 신설 등 관련 분야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 남원시의회 정례회 개최

### 양희재 의원 "춘향저널 이미지 개선" 강조

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제2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14일부터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3일에는 제2차 분회회의를 열어 시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과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26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양희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어떤 도시에 갈 때 도시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장소나 상징물이 있다며, 남원의 관문인 춘향저널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소는 공항, 철도역, 고속버스터미널이 될 수도 있고, 도시에 진입할 때 차량 등 내부에서 보이는 도시의 진입관문이 얼굴이 될 수도 있고, 톨게이트 인근 경관도 그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얼굴이 될 수 있다며, 상징물을 조현해 폐

상공적인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주의 호남제일문을 들었다. 남원을 찾는 이들에게 남원의 첫 인상을 던져주는 춘향저널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을 주장했다.

남원시가 춘향저널 입구에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도시와 춘향 남원이라는 문구, 춘향이 그네를 타는 조형물, 설치로 본래의 단순한 터널 기능에서 색다른 인상을 하나 더 더해 주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문구나 조형물도 좋지만 외지인에게 남원에 대한 인상을 더 깊이 있게 줄 수 있는 이미지 개선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 사기진작

### 남원시, 농업인 2억1370만원의 농작업비 지급

남원시가 2017년 처음 시행한 고령 영세규모 벼 재배 농업인 517농가에 대해 2억1370만원의 농작업비를 지급하였다. 남원시의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시범 사업은 만70세 이상이면서 영세규모(0.1ha이상 ~ 0.5ha이하) 농업인에게 벼 재배 농작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 경영비 절감을 통해 그동안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규모 벼 재배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 농업인으로 벼 재배면적이 0.1ha이상 0.5ha이하이며, 신청방법은 토지소재지 마을이장과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장 확인을 거쳐 지급된다. 영농사실이 확인되면 경운, 정지, 육묘, 이앙, 수확, 건조 등 벼 농사에 필요한 벼 농작업비의 일부인 m당 150원으로 농가는 15만원 ~ 7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실내수영장이 보수공사를 위해 임시휴장에 들어간다. 사진은 수영장 내부.

## 순창 실내수영장, 이달말까지 임시휴장

### 노후된 타일·온수탱크 교체 등

순창군 실내수영장이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말일까지 임시휴장에 들어간다. 실내수영장은 1998년에 개장, 작년에 헬스장 등 수영장 리모델링을 실시해 군민들의 꾸준한 호응과 관심으로 1일 평균 300명정도 이용중에 있으며, 10월말 현재 운영수입이 1억원으로 전년대비 27%가 증가했다. 이번 공사는 ▲벽체타일 전면보수 ▲철 구조물과 판넬 교체 ▲다층여과 장치의 활성탄 등 내부충진제 교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성언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은 "이번 공사는 안전한 수영장 환경과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불가피 시행하게 되었으며, 재개장후에도 이용객들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창의 물이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담양, 곡성군 등 인근 지역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번 공사는 ▲벽체타일 전면보수 /순창=이왕원 기자

▲철 구조물과 판넬 교체 ▲다층여과 장치의 활성탄 등 내부충진제 교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성언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은 "이번 공사는 안전한 수영장 환경과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불가피 시행하게 되었으며, 재개장후에도 이용객들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창의 물이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담양, 곡성군 등 인근 지역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번 공사는 ▲벽체타일 전면보수 /순창=이왕원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 지리산둘레길 사진 공모 연장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리산 둘레길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걷기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지리산둘레길 사진 공모전'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1인당 2점까지 출품 가능하고, 규격은 특별부문과 일반부문에 구분해 참가신청서와 원본 형식의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및 <http://www.trail.or.kr>를 참조해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 연장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나쁜 기후조건과 지리산 둘레길에 대한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고려된 조치"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및 <http://www.trail.or.kr>를 참조해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 연장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나쁜 기후조건과 지리산 둘레길에 대한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고려된 조치"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매아리

### 순창군, 2019년도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순창군이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2019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12월 4일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되므로 등록정보 현행화로 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요한다.

또한 신청기간 동안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료를 공급받는 내년도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지원되는 비료의 종류는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비,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와 부속유기질비료(2종, 가족분퇴비, 퇴비)이다. 비료별 지원 금액은 유기질비료가 1포(20kg)당 1,700원, 부속유기질비료는 등급(특등급~2등급)에 따라 1,400~1,700원을 차등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비료의 종류, 공급업체,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작성한 신청서를 마을이장 또는 작목반장에게 전달해 사업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구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유기질 비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번기 전에 조속한 공고를 위해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현황을 확인한 후, 반드시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팩스, 메일 등 신청할 수 있다. /순창=이왕원 기자

### 정부혁신 추진을 위한

### 국민참여 토론회 개최

국립임실호국원(원장 윤명석)은 14일 호국원 현충관에서 정부혁신 추진을 위한 국민참여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추곡수매를 마치고 호국원장과 호국원 관계자와 강진면장을 비롯한 마을 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주민과의 상생의 차원에서 정부혁신 추진을 위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앞으로 호국원에서는 지역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각종행사(나라사랑 어울림 콘서트 등)에 지자체인 강진면 주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상생을 표방하고 따뜻한 보훈 실천에 앞장서는 호국성지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